

Unexpected Sal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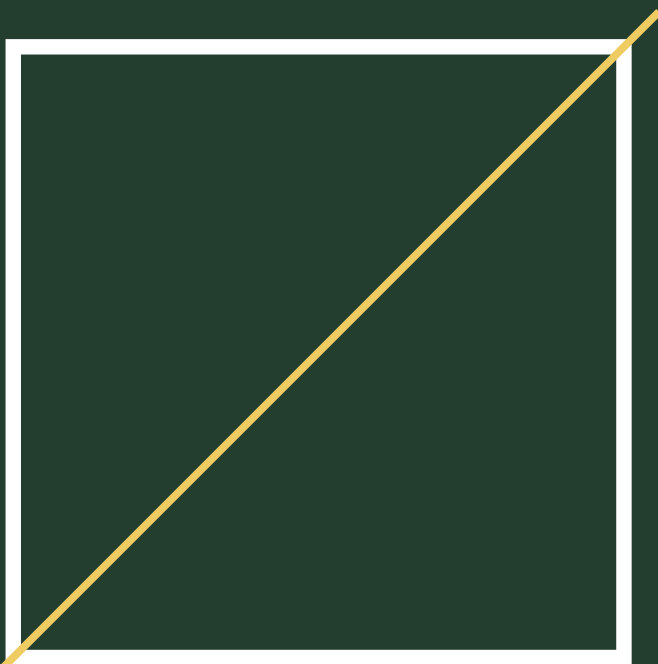
Yeomyoung Koh

Meeyoung Kim

Sangho Noh

Janh Jang

Yusam Sung



Unexpected Salon

우연히 발견한 살롱

CONTENTS

10	인사의 글		GREETINGS
12	축하의 글		CONGRATULATORY MESSAGE
14	소개의 글		INTRODUCTION
18	기획의 글		CURATORIAL ESSAY
20	ARTISTS		
	고려명		YEO MYOUNG KOH
	김미영		MEE YOUNG KIM
	노상호		SANG HO NOH
	성유삼		YU SAM SUNG
	장재혁		JANH JANG
90	작가 약력		PROFILE

인사의 글

Greetings

현시대의 투자는 ‘융합’이라는 테마 속에 있습니다. 더불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투자자들은 단순히 숫자상의 수익만을 바라지 않고 투자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희망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투자자들의 확장된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그 융합의 대상은 점점 전통적인 투자영역의 틀을 벗어나 점점 생소한 분야로 손을 뻗고 있으며 지금 (주)에이치앤아트가 하려는 금융과 아트의 만남 역시 그러한 융합의 흐름 속에서 선택 되어진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주)에이치앤아트는 무엇보다 한국 작가들과의 동행을 중요시 합니다. 동행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실력 있는 작가들을 선별하여 그들과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국내보다는 해외시장으로 좀 더 향해 있습니다. 그렇기에 <SPOT:LIGHT>의 첫 시작은 국내에서 선보이지만 이후 전시는 해외에 중심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며 <SPOT:LIGHT>와 함께 하는 작가들의 해외 진출 소식이 곧 이어 뒤따를 예정입니다. 저희가 가고자 하는 이 길에는 익숙함으로의 탈피와 동시에 새로움을 이끄는 많은 도전이 펼쳐져 있으리라 예상되는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지속가능성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시 되기에 어렵더라도 이를 염두하며 일신우일신 (日新又日新)하는 앞날을 준비하려 합니다.

<SPOT:LIGHT>의 전시 ‘우연히 발견한 살롱 Unexpected Salon’에서는 이 곳을 방문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공간의 의미를 완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시제목에 숨겨져 있습니다. <SPOT:LIGHT>에 초대받아 방문해주신 분들과 함께 전시를 관람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 곳의 아름다움을 향유하며 공간을 채워나가는 것이 SALON이 갖고 싶은 시간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 지 모르고 오로지 ART와 함께하는 즐거움으로만 이 프로젝트의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던 처음이 떠오릅니다. 전체적인 설명조차 어려워하면서도 누구보다도 크고 다르게 생각하며 프로젝트의 기반을 기획하던 시절에는 오늘과 같은 처음이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 기대와 함께 걱정으로 보내던 지난 날이 있기에 지금의 이 시작이 더욱 마음에 잔잔히 스며듭니다.

<SPOT:LIGHT>를 통해 (주)에이치앤아트와 함께 이 가을의 시간을 공유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슴속에 좋은 추억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2016. 10. 27

이지민
(주)에이치앤아트 대표

‘Fusion’ is a main theme of a current investment tendency. Targets of the fusion have expended their scope to unfamiliar fields, breaking their conventional investment territory. In this context, investors are expecting other things more than simple numerical profits. HNART believes that combining finance and art is responding to this demand; we aim to become the centre of the flow.

HNART values companionship with Korean artists. The direction we are heading with selected outstanding artists is a global market beyond Korea. Though we announce the launch of <SPOT:LIGHT> in Seoul, this exhibition was outlined for a promotion abroad. Therefore these five artists carefully adopted by <SPOT:LIGHT> will be introduced to the international stage in the near future. Instead of remaining in familiarity, the path we have chosen is expected to be a strenuous one which would unfold several challenges ultimately helping us to escape from formality and gain innovation. Being aware of that the direction of sustainability is more significant than its speed, we will prepare our future by improving day after day.

The exhibition title, ‘Unexpected Salon’ suggests our intention to form the venue’s meaning by cooperating with spectators who would visit the space. We hope that the SALON would be filled with appreciation of the space’s beauty and conversations with an audience invited to watch our exhibition.

I can recall the first period when we were encouraged by only excitements from art to draw up a blueprint for this project without knowing how it would develop. Since we made a great effort to think differently and comprehensively with certain expectations and concerns at the early phase when explaining the whole project was not straightforward, today’s beginning is more worthwhile.

Through <SPOT:LIGHT>, HNART will do our utmost to make memorable moments by sharing this autumn time with our guests.

27 October 2016

Ji Min Lee
CEO, HNART Inc.

축하의 글

Congratulatory Message

마음이 풍성해지는 늦가을의 한가운에서 (주)에이치앤아트의 첫 번째 프로젝트인 <SPOT:LIGHT> 개최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기존의 형식을 따르되 새로움을 만들려고 했던 과정을 옆에서 보아오면서, 이번 전시가 많은 분께 선물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에이치앤에이파트너즈는 고객이 예술과 소통하고 예술로 삶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데 기여하려 합니다. 그간 애정 어린 눈으로 (주)에이치앤에이파트너즈를 지켜봐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전시를 위해 애쓰신 작가님들과 (주)에이치앤아트에게 감사의 말씀과 축하를 전합니다. 다시 한번 <SPOT:LIGHT> (2016, SEOUL)의 개최를 축하합니다.

그 책을 책상 위에 놓아두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자유이다. 그러나 당신이 그 책을 펴볼 경우, 그것은 그 책에 대한 의무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는 그 자유로운 주관적 기능을 향유함으로써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성에 의해서 요구되는 창조적인 행위 속에서 경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절대적인 목표가 우리가 가치라고 일컫는 것이다. 예술작품은 일종의 요청이므로 곧 가치이다.

- 사르트르 (Jean-Paul Sartre), 문학이란 무엇인가? (1947) -

2016. 10. 27

박훈정
(주)에이치앤에이파트너즈 대표

We are pleased to announce the opening of HnART's first project exhibition, <SPOT:LIGHT> in the middle of late autumn, the season of abundance.

I am convinced that this exhibition will be an artistic present to an audience as I have witnessed the process of creating innovation in parallel with maintaining conventions of existing exhibitions. HnA Partners Inc. will continue contributing to enrich customers' life through an interaction with art. We appreciate many people who have kept an eye out for our development and we carefully ask for your constant attention and constructive advices. Lastly, I would like to thank and congratulate HnART and the artists who made a great effort for the exhibition. Congratulations again to the opening of <SPOT:LIGHT>[2016, Seoul].

You are perfectly free to leave that book on the table. But if you open it, you assume responsibility for it. For freedom is not experienced by its enjoying its free subjective functioning, but in a creative act required by an imperative. This absolute end, this imperative which is transcendent yet acquiesced in, which freedom itself adopts as its own, is what we call a value.

- Jean-Paul Sartre, <What Is Literature>, 1947 -

27 October 2016

Harry Park
CEO, HnA Partners Inc.

소개의 글

Introduction

이슬기
(주)에이치앤아트 디렉터

Seul Ki Lee
Director, HnART Inc.

〈SPOT:LIGHT〉빛을 받을 자리를 마련하다.

〈SPOT:LIGHT〉는 “빛을 받을 자리를 마련하다.” 는 의미로 만들어졌습니다.
빛을 받을 대상은 ‘작가와 작품’이며 이러한 자리를 국내외에 마련하는 것이 〈SPOT:LIGHT〉의 설립
목적입니다.

〈SPOT:LIGHT〉전은 ‘미술만을 위한 미술전시’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향해 자신의 언어로 질문을 던지는 작가에게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미술을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생각의 문을 열어주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SPOT:LIGHT〉는 국제 미술계 지형도를 읽는 것을 바탕으로 나름의 의미를 만들기 위해 영민한
감각 속에서 빠르게 몸짓을 바꾸며 전시 이상의 무엇이 되길 바라며, 형식 · 내용 · 공간과 지역 등을
미리 정해놓지 않을 것입니다.

즉,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동시대를 담을 확고한 의지가 있는
작가들과 함께할 것이라는 점과 더 좋은 맛을 내기 위해 기본 레시피를 유동적으로 혹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변경하여 목표에 도달하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SPOT:LIGHT〉는 아트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으로 관람객을 맞이할 것입니다.
숨은 가치에 눈 뜰 수 있도록 작가의 언어를 현실의 언어로 바꾸는 해석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
다. 관람자에게 일회성 미술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변경할 의지를 부여해 주는 전시가 되길 바랍
니다. 이 과정에서 〈SPOT:LIGHT〉는 기존 미술전시들이 가진 코드를 따르기보다는 편안하고 느슨
하게 관람객을 대하되 기본에 충실할 것이며, 경직은 풀되 날렵한 자세를 취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존 시장에서 가고 있는 길과는 다른 우회도로를 찾고자 하며, 그 길은 설사 돌아갈 순 있지만
작가 및 애호가들과 함께 하는 과정의 즐거움을 극대화하려는 방법을 추구할 것입니다.

〈SPOT:LIGHT〉는 작가구성에 있어 스타작가에게 힘을 가해주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를 읽어내겠
다는 각오로 작품에 몰입하는 개성이 뚜렷한 30~40대 작가를 선정하였습니다.
메가트렌드에 힘을 받는 마지막 자락이 아닌 특정한 연령 · 학업 · 장르 등에 상관없이 자기만의 작업관
이 뚜렷한 다섯개 장르 (페인팅, 사진, 판화, 설치, 조각)의 다섯 명의 작가들을 소개합니다.

〈SPOT:LIGHT〉Preparing a spot to receive light.

〈SPOT:LIGHT〉refers to ‘preparing a spot to receive light’.
Recipients of the spotlight are artists and artworks, as 〈SPOT:LIGHT〉was estab-
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internal and external spaces for them.

The exhibition 〈SPOT:LIGHT〉is not an art show for only art. We aim to open a door
for people who sincerely want to contemplate art and to make opportunities for artists
who address questions to the present generation with their own language.
On the basis of grasping the geography of the international art world,

〈SPOT:LIGHT〉would maintain swift approaches with a keen sensibility to create a
new meaning of art exhibitions. We will not decide forms, contents, spaces and areas
in advance; nothing has been entirely fixed. Only thing we can clarify is the attitudes:
being flexible to reach our destination as a cook alters his recipe for better taste
and keeping a partnership with artists who are determined to convey contemporary
scenes into their practice.

〈SPOT:LIGHT〉looks forward to greeting visitors, keeping the mind of offering an art
concierge service. We will faithfully carry out our role of translating artists’ language
into a practical one in order to help an audience to discover hidden meanings of the
artworks. We hope that our exhibition provides a motivation to change their lifestyle for
the spectators, rather than being satisfied with a one-time art show. In this process,
〈SPOT:LIGHT〉will treat our audience in a comfortable and relaxed manner without
ignoring the basics, instead of following existing art exhibition trends; we will adopt
a deft posture, avoiding a rigid attitude. We are seeking an alternative route which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market’s path. Although it might be a detour, we would
constantly pursue ways maximizing pleasure of a process with artists and art-lovers.

In terms of organizing artists, rather than empowering already renowned artists,
〈SPOT:LIGHT〉has selected artists of distinct artistic individuality in their 30s and
40s who are focusing on their works with insights into our society. We are pleased to
introduce the five artists who actively work in their own genres, painting, photogra-
phy, printing, installation and sculpture, regardless of particular ages or academic
backgrounds.

고려명 (Yeo Myoung Koh)의 사진은 ‘촉각적 감각’을 담은 시각적 긴장감을 통해 사람의 본능적인 욕망을 자극합니다. 결과물로서의 사진은 존재하는 대상 이상의 것을 포착하여 작업이 재현을 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화려한 시각적 이미지로 ‘소유’에 대한 욕망을 채워 주는 듯하지만, 결국 그 무엇도 가질 수 없음을 확대된 거대 시각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김미영 (Mee Young Kim)의 페인팅은 작가의 ‘심리적인 공간’이 캔버스 위에 특유의 색채와 붓질로 안착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심리적 공간은 작가가 경험하거나 경험할 일상·문화·무의식 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색채는 원색 혹은 각기 혼합되어 특정한 시간적 지역적 색채를 넘어 시공간을 넘나들며, 붓질은 무의식적으로 행해져 굵기도 뿌리기도 칠해지기도 하면서 빈 캔버스를 메웁니다.

노상호 (Sang Ho Noh)는 일상과 가상세계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의 세계를 만들고 유희합니다. 이미지들은 드로잉·판화·페인팅·설치·프린트 등의 방식으로 구현됩니다. 그리고 생성된 이미지들은 SNS를 통해 타인에 의해 ‘재생산’됩니다. 노상호는 본인의 작품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즐기고 그 반응들을 채집하여 다음 단계의 작품을 시도하고 안착시키는 작업을 마치 퍼포먼스처럼 구현합니다.

성유삼 (Yu Sam Sung) ‘재료의 물성’을 통해 대상의 이중적 특징을 보여주려 합니다. 즉, 주제에 대한 표현 의지를 원재료가 가진 <물성>으로 나타냅니다. 스펀지는 이러한 이중성을 가진 재료로서 부드러워 보이지만 거친 표면을 지녀 작가가 표현하려는 두 개의 상충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표현 대상은 같은 물의 파동이지만 ‘파도가 쓰나미’로 인식되곤 하는 자연현상 등 내제된 인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장재혁 (Janh Jang)은 현 사회에서 개인이 느끼는 사회·문화·역사·정치 상황에 대한 관심을 보여줍니다. 이 관심은 동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불합리함과 해결을 위한 고통 등이며, 이 상황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유하고, 생각해 보길 촉구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닌 서로 관계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장재혁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예술이 할 수 있는 것이라 믿고 조소를 기반으로 하되 페인팅·드로잉·설치 등 다양한 시각적 언어로 표현합니다.

“빛을 받을 자리”인 <SPOT:LIGHT>는 서울에서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정된 비행시간 없이 연착된 비행기를 기다리는 초조함과 지치는 순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여정을 기꺼이 즐겨나가는 예술동반자가 되길 위해 <SPOT:LIGHT>는 빛을 밝힐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Yeo Myoung Koh’s photographs arouse a human instinctive desire through a visual tension containing tactile sensations. As an artistic outcome, the photographs do not indicate just a representation since they capture something more than an existing object itself. Koh’s splendid visual images seem to satisfy the desire for possession, yet in the end his magnified giant imageries draw a realisation in which there is no such thing to be possessed.

Mee Young Kim’s paintings show that the artist’s unique colours and brush strokes enable her psychological space to settle down on a canvas. This mental space is closely related to not only her own unconscious state but also her ordinary life and culture which she has experienced or would do. Primary or blended colours of her practice cross spatial-temporal realms beyond certain time and areas. Her strokes are unconsciously generated through actions of scratching, spraying and painting, and consequently they fill up a vacant canvas.

Sang Ho Noh constructs one world by employing images from an ordinary life and a virtual world; furthermore he plays with it. These images are embodied through various methods: drawings, printings, paintings and prints installations. The generated imageries are reproduced by strangers via Social Networking Service. Noh observes responses from the viewers who encounter his work and gathers them for his next project. This course of attempting and undertaking the new work is dealt with by the artist as if it were a performance.

Yu Sam Sung presents double features of particular targets by revealing their physical properties. In other words, Sung manifests his determination to express the subjects in the source medium’s intrinsic properties. Sponges are suitable for two conflicting characteristics that the artist tries to expose, as they imply duality: their soft appearance and rough surfaces. Objects of his representation raise a problem about recognizing inherent experiences. For instance, one of the natural phenomena, water fluctuations can be understood as either sea waves and tsunami.

Janh Jang expresses individuals’ interests in society, culture, history and political states of the present. This attention is mainly a struggle for removing irrational and absurd affairs occurred in the contemporary period. He urges viewers to contemplate, share and report this situations. A series of the incidents show that each one is related to the other, rather than being divided. Jang believes that an ability of art is delivering this messages and he continues describing them by applying diverse media such as paintings, drawings and installations with his sculptural foundation.

Preparing a spot to receive light, <SPOT:LIGHT> is planning to arrange oversee events, in addition to the Seoul exhibition. Even though we might confront anxious and exhausting moments in the process as though we were waiting for delayed flights without a scheduled flight time, <SPOT:LIGHT> is preparing to bring light in order to be a committed art partner who would willingly enjoy the journey.

기획의 글

Curatorial Essay

이슬기
(주)에이치앤아트 디렉터

박지수
(주)에이치앤아트 큐레이터

Seul Ki Lee
Director, HnART Inc.

Ji Sue Park
Curator, HnART Inc.

우연히 발견한 살롱

영국에 머물 당시, 거주할 곳을 찾기 위해 집들을 둘러 보러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빅토리아 양식, 팔라디안 양식 등과 같이 이전 시대의 건축양식에 따라 지어진 집들도 있었습니다. 그 외관은 당시 그대로였지만, 내부는 방의 숫자만큼 자물쇠를 채우고 각자의 공간을 나누고 살고 있었습니
다. 이렇게 겉과 다른 안을 마주한 순간은 마치 다름이 자연스럽게 혼용된 동시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기억을 떠올리며 마련한 ‘우연히 발견한 살롱’은 보이는 외관과 다른 내부의 공간, 그리고 각기 다른 색을 가진 다섯 명의 작업 세계를 볼 수 있는, 작가가 주인인 ‘아무개 살롱’을 한 곳에 모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마주하였던 그 생경한 감각을 자극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전시 제목인 ‘우연히 발견한 살롱 Unexpected Salon’ 은 공간 · 시대 · 의미가 상충되는 두 단어인 ‘우연히 (Unexpected)’와 ‘살롱 (Salon)’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거 살롱이란, 신분을 막론하고 지성인이라면 참석할 수 있었던 사교의 공간으로 진보된 사상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는 교류의 장소였습니다. 과거 17~18세기 프랑스에서 처음 생겨난 살롱은 주인의 매력과 초대된 손님들의 유명세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주인의 이름을 딴 여러 개의 살롱이 생겨났고, 그 중 ‘퐁파두르 부인의 살롱’과 같은 유명 살롱은 자유주의 계몽사상을 보급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17~18세기 유럽의 시대적 의미를 배경으로 하는 살롱과 같은 고급문화는 어쩌면 우리가 ‘미술’에 기대하고 있는 어떠한 측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술가들이 관람객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우연히’ 지나치다 무언가를 발견하고 찾는 과정일 것이며, 동시대적 의미를 가진 ‘우연히’는 ‘살롱’과는 다르게 ‘개방적이며, 언제 · 어디에서든지 ·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는 뜻을 가질 지 모릅니다.

이렇게 상충되는 두 단어를 한 바구니에 담으며 각기 다름을 인식하기 보다는 하나의 선상에서 교차하는 의미를 하나로 바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미술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유에서 한 걸음 나아가 동시대 미술을 이해하는 첫 발판을 만들고 싶습니다. 다섯 명의 살롱 주인 (작가)이 예술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을 초대한 동시대 우리의 살롱에서 말입니다.

Unexpected Salon

While I was staying in the UK, I once viewed several houses to find a place to rent. Some of the houses were constructed in past ages’ architectural modes such as Victorian and Palladian style. Although the buildings’ exterior remained their past appearance, a variety of people were sharing the houses by dividing into each individual space with locks as many as the rooms. The moment was when I encountered the inside completely different from its outward figure. In addition, it was when I found a portrait of contemporary people who live in individual spaces under one roof. In this respect, the space of this exhibition looks like a certain era’s house stimulating an unfamiliar sensation which I faced in the UK. The inner space and its contrasting facade arouse a sense of similarity to ‘Someone’s Salon’ where provides an opportunity to watch artworks of five artists with distinct characteristics.

The exhibition title ‘Unexpected Salon’ consists of two contradict words, ‘Unexpected’ and ‘Salon’, in terms of their places, periods, and lexical origins.

In the past, salons were a typical space for socializing where any intellectuals can attend regardless of their social status. New progressive ideas briskly emerged and various opinions were exchanged in this place. Salons first appeared in France during the 17th and 18th centuries, and they were often evaluated by levels of guests’ fame and hosts’ attraction. As more salons were opened in the names of owners, some of them played a significant role of diffusing Liberalism Enlightenment such as Madame de Pompadour’s salon.

What spectators expect from art might be some aspects of high culture like salons whose semantic and historical background stem from Europe in the 17th and 18th centuries. However, artists’ wish could be a process in which the audience accidentally faces and finds something. As opposed to the origin of the term, ‘Salon’, the word ‘Unexpected’ contains a contemporary meaning that is open to any time, any place and any person. By putting conflicting two words into one basket, we attempt to embrace two different meanings intersecting on one contextual line, rather than perceiving their discrepancy. Making a step forward from a dichotomous way of thinking about art, we hope to establish a foothold to fully comprehend contemporary art. Accordingly, Unexpected Salon’s hosts, the five artists are inviting guests who are ready to enjoy art to the salon of our age.

Janh Jang

장재혁

장재혁

JANH JANG

장재혁 (Janh Jang)은 1982년생으로 대학에서 조형을 공부하고 제1회 서울예술재단 포트폴리오 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본격적인 작가 활동을 시작했다.

장재혁의 작업은 작가 개인이 세상의 구성원으로서 바라보는 사회 · 문화 · 종교 · 정치 등 각 분야에 대한 관점을 조형을 중심으로 보여준다. 조형에서는 주제가 되는 대상 (인체)을 선정하고 여기에 인체의 상태와 행동, 보조장치 (오브제 등)를 가미하여 이야기와 감정의 전달에 중점을 둔다. 또한, 인체는 소통의 과정에 있어 피워낼 수 있는 생각의 다양성을 대지의 개념으로 풀어 전달의 기제로 정하고, 특히 가장 많은 감각기관을 지니고 있는 머리 부분에 더해진 오브제와의 연출로 인해 대상을 더욱 깊이 있게 표현하였다. 보통 인간의 몸은 세상을 경험하는 능동적인 감각기관 이지만 장재혁의 인체는 자기통제를 상실한 듯 축 늘어진 몸으로 인간의 유한성과 불안정함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순간의 존재는 있을지 모르지만 순간일 뿐, 결국 영원함, 완전함은 없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임을 말한다. 우리 모두가 '완벽하지 않기에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길 바라면서.

이번 <SPOT:LIGHT>에서 장재혁은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자장가 (Lullaby For Blind)'에 이어 '쉬이 사라지는 덧없음 (Evanescent)'을 주제로 선보인다. 이 시리즈에서 작가는 '날 수 없는 죽은 새'를 아이들이 뒤집어쓰고 '살아있는 새'를 흉내 내는 것에 집중하였다. 이를 통해 도달하지 못할 높은 곳을 갈 수 없는 경계 너머의 어떤 곳을 바라보며 날고 싶어 하지만, 죽은 새의 탈을 쓰고 있으므로 정작 흉내 내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작품은 '나'를 포함한 우리 사회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듯하기에 다소 관객을 불편하게 만들지 모른다. 이전 시기의 작업이 정적인 개인의 참여를 촉구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작품에 이야기를 불어넣어 인물 간의 역할을 부여하고, 보다 직접적인 작가 메시지를 전달한다.

Born in 1982, Jahn Jang received BFA in Sculpture and he has expanded his career since he won a prize of the first Portfolio Exhibition hosted by Seoul Art Foundation.

As a member of our community, Jahn Jang presents a point of view on diverse sectors such as society, culture, religion and politic with his artistic foundation, Sculpture. He first selects a target(body) which is his work's subject and adds the body's behaviour, state, and subsidiary objects in order to convey narratives and emotions. Also, he adopts the body as a delivery mechanism interpreting a diversity of thoughts occurred in course of communication into a notion of the earth. Especially, by attaching several objects onto the body's head part where the greatest number of sense organs are situated, the artist achieves gaining a deeper expression. A human body is generally an active sensory organ experiencing the world, whereas Jang's body suggests human's instability and finitude by displaying flabby figures looking as if they lost a self-regulation. The artist illustrates that humans are fragile presences who just exist in moments without eternity and wholeness, hoping to realise that we all need to build a relationship due to our imperfection.

In this exhibition <SPOT:LIGHT>, Jahn Jang reveals artworks whose theme is 'Evanescent', followed by the previous work, 'Lullaby For Blind'. In the series, Jang describes a scene in which children imitate alive birds, being covered with dead birds that cannot fly anymore. Through the depiction, he attempts to portray that an existence can only mimic flying by wearing a mask of dead birds, in spite of the desire to fly towards some points too high to reach or some places beyond boundaries. Since it reflects our society including 'I' without any kind of filter, it might make an audience uncomfortable. The artist cautiously encouraged individuals' participation in the previous works, whereas he now delivers more direct messages by aggressively bring narratives into his practice and assigning each role to characters of the story.

The Sound of Air

2016

Handmade Objet with Clay / Resin, Air-Dry Clay, Polymer Clay & Mixed Media

19 x 24 x 36 cm (1023g)



Evanescent

2015-2016

Handmade Objet with Clay / Resin, Air-Dry Clay, Polymer Clay & Mixed Media

58 x 76 x 150 cm (6400g)



**ARTSIT
STATEMENT**

아이들이 죽은 새를 뒤집어쓰고 놀니다.
아무래도 날고 싶었나 봐요. 새가 되면 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저도 새가 되어보고 싶었습니다.
난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지상에 사람들이 개미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일까요.
정말 여기가 아닌 다른 곳도 갈 수 있을까요.
그냥 여기 말고 어딘가로 가고 싶네요.
바람소리가 듣고 싶어요.



Children are playing, wearing dead birds
They must have wanted to fly
They must have believed that they could fly, if they were a bird
I once wished that I were a bird
Wondered the feeling of flying
Wondered how people on the land would look like, perhaps meaningless presences like tiny ants
Wondered could I go somewhere, but here
I wish I could be elsewhere
I wish I could listen to the sound of wind

Evanescent

2015-2016

Handmade Objet with Clay

Resin, Air-Dry Clay, Polymer Clay & Mixed Media

58 x 76 x 150 cm

Stand (Ash wood & Mixed Media)

Variable Installation with 'Mimic' (9/9)



Unfallen Things

2016

oil, pigment, charcoal on canvas

130.3 x 193.9 cm





Installation view at "*Holding Effect*", Seoul Art Foundation PLUS, Seoul, Korea

Profile

작가 약력

장재혁 | Janh Jang
Born in Seoul, South Korea, 1982



SOLO EXHIBITION

- 2016 Lullaby For Blind - 아트인더오피스, 에이치앤에이파트너즈 서울, 한국
- 2015 Holding Effect, 서울예술재단, 서울, 한국

GROUP EXHIBITION

- 2016 우연히 발견한 살롱, 에이치앤아트, 서울, 한국
- 2015 My Collection, 서울예술재단, 서울, 한국
- The First - Portfolio Exposition, 서울예술재단, 서울, 한국
- 2014 Salute, 갤러리 구, 서울, 한국

SOLO EXHIBITION

- 2016 Lullaby For Blind - Art In The Office, HnA Partners, Seoul, Korea
- 2015 Holding Effect, Seoul Art foundation PLUS, Seoul, Korea

GROUP EXHIBITION

- 2016 Unexpected Salon, HNART, Seoul, Korea
- 2015 My Collection, Seoul Art foundation PLUS, Seoul, Korea
- The First - Portfolio Exposition, Seoul Art foundation PLUS, Seoul, Korea
- 2014 Salute - Open Exhibition, Gallery Koo, Seoul, Korea

Published on the occasion of the exhibition
Unexpected Salon

27 October, 2016 - 2 November, 2016

Organized by	HNART
Supported by	HNA Partners
Curated by	Seulki Lee
Text	Harry Park, Jimin Lee, Seulki Lee, Jisue Park, Yeomyoung Koh, Meeyoung Kim, Sangho Noh, Yusam Sung, Janh Jang
Translated by	Su Jung(English)
Designed by	Jisue Park
Photography	pg 31,32,33,34,35,37,59,60,61,62,63,65,80 © BauFoto pg 66, 67 © Seoul Museum of Art, Nanji Residency pg 38, 39 © Jipil Jung
Printed by	ArtPlus
Published on	18 October 2016

Published by
HNART, Korea
4F, 32, Gangnam-daero 58-gil, Gangnam-gu, Seoul, Korea, 06259

Copyrights 2016 © by Copyright holders, Artists, Authors, and HNART, Korea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or otherwise,
without prior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s.



ISBN 979-11-959065-0-5
₩ 28,000

SPOT:
LIGHT |